

 성탄절 전도집회

순 성경공부 ☆...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 전도집회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40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주제로 한 40일 성구암송, 새벽기도와 더불어 5주간의
특별 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도대상자를 선정하시고, 그분들을 순 예배에 초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도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들의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5주간의 순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용조

< 차 례 >

1.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 어떤 목자
4. 빛을 갠으십시오
5. 내 집을 채우라

(1)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상을 위한 읽기

미국이 17일 대규모 선발대를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가시화됐다. 17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향한 50여명의 선발대는 경호와 안전, 통신 등을 점검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미 8군 시설, 통신 요원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다음 주로 예정된 올브라이트 장관 방문과 다음달로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빌 클린턴 대통령 방북의 사전 정비작업을 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미국의 핵심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문 : (요 20-19-23)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묵상 및 나눔

1. 주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이 경험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19절 a)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장사지남을 목격한 제자들은 실의에 빠져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분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홀로 남게 된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 여러분이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 고통당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2.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 b)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살롬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이는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계심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안해하기 보다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늘도 당신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3:28), 예수님(6:39), 그리고 제자들(우리들, 20:21)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 1) 보내신 이의 권세를 누립니다. (요13:20)
- 2)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6:39)
- 3) 마지막으로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요19:30)

★ 2003년 12월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에게 보내셨으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4.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악한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떠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3절)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10:16)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 당신이 이번 성탄절에 전도대상자를 향해 나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용

전도대상자를 정하여서 신상카드를 작성하십시오.

(2)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목상을 위한 읽기

🏃 페이스메이커(Pacemaker) 활약

마라톤에서 자신의 기록 단축 욕심은 포기한 채 대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42195km를 달릴 수 있도록 앞장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 메이커들입니다. ‘주행 도우미’를 자칭한 이들은 얼마 전 열린 춘천마라톤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 참가자 중에도 팔뚝 등에 구간별 주파시간을 펜으로 적어 스스로 힘을 조절하는 ‘전문가’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목시계 무게 조차 부담스러워 맨손으로 뚝 ‘마라톤 초보자’들에게 페이스 메이커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완주 목표시간을 상의에 붙이고, 은색풍선을 들어 위치를 알린 마라톤 선배들 뒤만 쫓아가면 무리하지 않고 레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 메이커의 목표는 우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레이서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본문 : (요 1:35-42)

“(35)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36)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39)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쯤 되었더라(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 묵상 및 나눔

1. A.D. 1세기경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세례요한은 예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5절)

1)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께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
1:23 _____

요
1:27 _____

요
1:31 _____

요
3:28-30 _____

2)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합니까?

요1:29, 30_____

요1:34_____

요3:31_____

세례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그가 아닌가 하여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며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 메이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 여러분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39절)

요한복음에는 “와 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1:39), 빌리이 나다니엘에게(1:45),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사람들에게(4:29)입니다. “와 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는 뜻이며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갖는 최선의 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이론보다 영적 체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 멀찍이서 서성이던 때는 없었습니까? 그 때 과감히 그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그와 함께 하루를 같이 지냅니다.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1) 생각이 바뀝니다.

요1:38_____

요1:41_____

2) 행동합니다.

41절_____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은 선생에서 메시야로, 나사렛이단의 괴수에서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진 안드레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4.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온 시몬에게 주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42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래는 사라로, 사울은 바울로, 세상에 속한자에서 그리스도께 속한자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 당신은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전체적용

성탄절 전도집회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화

저는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아스피린의 의학적 성분이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아스피린에 관해서 다 알아야 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두통에 좋은 약이야 라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성경의 넉넉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기초적이며 근원적인 지식 앞에 아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3) 어떤 목자

목상을 위한 읽기

사람 찾는 광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달라스 폴만(80)씨는 (상사 서정옥(Sae Chang Ok, 군번 K-1116201), 특무상사 김동우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52~53년까지 7사단 31연대 1중대 중대본부에서 같이 근무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들을 찾으려고 세 번이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생전에 그들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연락주신다면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띄웠다.

생모를 찾고 있어요. 출생증명서가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은주(Un Chu Yi)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 제인 케일러, 여동생은 마리온 케일러입니다.

본문 : (눅15:1-7)

“(1)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4) 저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묵상 및 나눔

1. 지금 주님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1-2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주님은 그들을 목자와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목자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4절) 왜 목자는 그렇게까지 할까요?

☞ 귀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아헤맸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최근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돈이든, 귀중품이든, 아니면 허접 쓰레기 같은 것일지라도... 성동구 보건소 4층 서울경찰청 유실물관리센터를 둘러보면 분실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지하철이나 각 경찰서 유실물센터에 신고돼 보관하던 물품 중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습득 뒤 2주일 정도면 이곳으로 옮긴다. 4층짜리 철제 선반에는 분실물이 가득하다. 모두 3576점. 그 중 핸드폰이 998점으로 가장 많다. 가방과 옷(425점), 호출기(408점), 시계(405점)가 뒤를 잇는다. 분실물에는 귀금속이나 카메라 같은 귀중품은 물론, 틀이나 안경처럼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물건도 있다.

복권이나 채권도 수십 장. 1986년 광복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쓴 붓글씨를 담은 액자와 한약도 눈에 띈다.

핸드폰은 97년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늘었다. 센터 관계자들은 “핸드폰 주인을 어렵사리 찾아서 가져가라고 말해줘도 ‘됐다’는 얘기를 들곤 한다”고 했다. 가격도 계속 내리고 하루

가 멀다하게 신형이 나오기 때문인지 굳이 찾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6.15 -

3.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5-6절)

당신은 만일 이번 전도집회 때에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축하해주겠습니까?

4. 주님에게 있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7절)

cf) 요6:39 _____

주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요 21:15)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을 찾아가, 먹이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 당신은 전도대상자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전체적용

전도대상자에게 줄 선물이나 사람의 표시물을 준비합시다.

☞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있느냐?”고 물으실 때부터 그분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찾음’의 절정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당신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잃어버린 그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 빛을 갠으십시오

목상을 위한 읽기

☞ 다니엘 신부

[다니엘신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나환자들이 모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갔지만 그들은 다니엘 신부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건강

한 사람이고 우리는 문둥병환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 이 유입니다. 그 때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문둥병의 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발생되길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몸에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하며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은 환자요”라고 말합니다. 그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여 주었고 그 성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신부는 그 문둥병환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본문 : 롬1:13-17

“(13)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묵상 및 나눔

1.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기간동안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13절)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14-15절)

당신은 누군가에게 빛진 적이 없습니까? 그 때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부채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라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십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부채입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또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갚아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 로마서 강해 하용조 목사 -

3. 하나님은 피차 빛진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만 예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롬13:8)

빛은 부담입니다. 빛은 갇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빛은 허용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의 빛과 일반 채무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 복음의 빛을 갇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채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지상명령입니다.

★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용

전도대상자에게 전달 복음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실습하기.

☞ 1945년 이전까지 내한한 선교사 수는 무려 1,502명이다. 이 숫자는 당시의 인구를 비례해 볼 때 다른 해외선교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선교사가 내한하여 집중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선교대상 국가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1999년 말 주요선교단체의 파송선교사 수는 8,101명에 이르고 있다.

(5) 내 집을 채우라

목상을 위한 읽기

☞ 그들만의 리그

프로야구 가을 잔치에 손님이 없다. 삼성-롯데의 준 플레이오프와 현대-삼성의 플레이오프 및 LG-두산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25일 오전 현재 올해 포스트시즌 관중은 10만 6천 947명으로 게임당 평균 1만 694명이 입장했다. 총 22만 7천 22명의 관중을 기록한 지난해 포스트시즌의 게임당 평균 1만 4천 232명에 비해 24.9%나 줄었다. 또 현대-삼성의 플레이오프는 3차전까지 단 한번도 9천명의 관중을 채우지 못하더니 삼성이 3연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대구구장 4차전에서는 3천 108명이 입장, 역대 플레이오프 최소 관중을 기록했다.

본문 (눅14:15-24)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 되도다 하니(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 되었나이다 하매(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거리를 샀으매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셨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묵상 및 나눔

1. 주님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17절)



주님은 사역기간 동안 많은 잔치 집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십니다. 이는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여러분을 가장 만족시켰던 잔치는 어떠했습니까?

2. 이 잔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함께 갈 것을 권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3.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21절)

주님은 그들의 거절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분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잔치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가라(go!)고 명령하십니다.

★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주인의 명령에 대한 하인들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22절)

하인들은 스스로 초청대상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잔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명한대로 심부름한 것으로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 우리는 전도의 대상과 결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전체적용

전도대상자에게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고, 집회에 데리고 오기

☞ 한국 컴퓨터선교회의 통계에 의하며 시, 도 별 인구수 대비 복음화율이 제일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북 익산시 34%이며 다음으로 과천시 32%, 군산시 32%, 김제시 30%, 울릉군 3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가 각각 30%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도 8%, 경상남도 9%, 합천군 4%로 나타났다. 비교적 도시 중심으로 교회와 교인이 많았으며 반대로 산간지방과 경북, 경남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의 경우 모두 30%의 높은 복음화율을 보였다. 또한 제일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대한 예수교장로회(합동)으로 교회수 6,494 전체기독교에서 17.2%를 차지했으며 교인수에서는 2,295,766명으로 전체 기독교에서 20.7%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평균 목회자 1인당 교인수는 176명이며 한 교회당 교인수는 3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교인 비율은 전국 남자 47%, 여자 53%로 나타났다.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대상자들의 영적 필요를 파악하고 접촉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2.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영이 사라지도록
3.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4. 당일에 참석하기로 걱정했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5.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복되도록
6. 설교와 출연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7. 전도집회를 통해서 많은 결신자가 생길 수 있도록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제목 >
